

典經에 나타난 冤의 本質과 構造

朴 龍 哲*

目 次

- | | |
|-------------------------------|------------------|
| I. 들머리 | 3. 冤의 構造 |
| II. 冤의 本質과 構造 | (1) 肯定的 側面의 冤 |
| 1. 冤의 概念의 試論的 理解 | 1) 원·冤으로 나타나는 冤 |
| (1) 典經에서 冤과 關聯된 用
語들의 相互關係 | 2) 恨으로 나타나는 冤 |
| (2) 冤, 怨, 恨, 憾의 字典的
意味 比較 | (2) 否定的 側面의 冤 |
| 2. 冤의 本質 | 1) 主體的 冤 |
| (1) 冤의 始作點에서 본 宇宙
觀의 意味 | 2) 客體的 冤 |
| (2) 丹朱의 冤에 대한 分析 | 4. 冤의 總體的 構造와 定義 |
| | (1) 冤의 總體的 構造 |
| | (2) 冤의 定義 |
| | III. 마무리 |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I. 들머리

大巡眞理는¹⁾ 信仰의 對象이신 九天上帝(姜甌山)²⁾ → 道の 主人이신 道主(趙鼎山) → 道를 領導하시는 都典(朴牛堂)으로 이어지는 淵源으로부터 비롯되며,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을 宗旨로 하고 있다. 이 진리를 사상적 측면에서 보면 대순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종지 해원상생은 대순사상의 대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원상생을 해석하는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원의 개념에 대한 이해와 원이 가지고 있는 양면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다른 데서 비롯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해원상생의 바른 이해와 해석에 대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분석 및 정립을 하고자 한다.

본인의 즐고 〈해원상생에서 원에 관한 연구³⁾〉에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지만 원과 관련된 유사 용어들의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였고, 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으며, 또한 원의 본질을 규명하지도 못하였기에 다시 한 번 더 심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서 첫번째로 대두된 문제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용어들의 상관관계를 정하는 것이었다. 즉 〈전경〉에서 ‘풀다’의 목적어로 쓰여진 용어는 삼십여 종류가 있다. 이 용어들을 개개적으로 분석 및 정리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조장할 수 있기에, 원의 본질 규명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용어

- 1) 大巡眞理는 <大巡眞理會要覽> p.5에 「대순진리회는 조정산 道主께서 滿洲 奉天에서 姜聖上帝로부터 그 天賦의 宗統繼承 啓示를 받으신 데서 비롯하여, 遺命으로 宗統을 이어받으신 都典께서 領導하시는 于今까지 半世紀를 훨씬 넘은 六十餘年間의 發展史를 가진 宗團의 名稱이다」에서 비롯된다. 대순진리회의 宗統은 곧 淵源이며 이 淵源이란 용어의 뜻은 <대순지침> p.14에 「본도의 연원(淵源)은 상제님의 계시(봉서)를 받으셔서 종통을 세우신 도주님으로부터 이어내려 왔다」, 「이 연원은 바꿀 수도 고칠 수도 없으므로 연운과 혼돈해서는 아니된다」에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순진리회는 구천상제, 옥황상제, 도전을 연원이라고 하며, 이 연원에서 비롯된 진리를 대순진리라고 고유화 하고 있다.
- 2) 상제의 성은 姜씨이오, 존휘는 一淳이고 자함은 士玉이시고 존호는 甌山이시다. 誕降日은 辛未(1871)년 음력 九월 十九일 이시고 誕降地는 全羅北道古阜郡優德面客望里로 부르다가 지금은 井邑郡德川面新月里이다. 化天日은 기유(1909)년 음력 六월 二十四일이다. 神格位는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이시고, 人格位는 姜聖上帝이시다.
- 3) 박용철, <解冤相生에서 冤에 관한 研究> (大眞論叢, 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포천: 대진대학교출판부, 1996)

들 간의 유사성을 찾아서 용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수립하여 계통도를 먼저 만드는 것을 첫 작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계통도에서 가장 기본이며 근본에 해당하는 용어들을 설정하여 그 용어들의 자전적 의미를 찾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장 함축성 있는 용어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대순사상에서 나타나는 冤의 자형적 의미도 고찰하였다.

원의 시작에 해당하는 단주의 원을 분석하기 전에 원의 시작이 주는 의미가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었다. 즉 천지공사 직전에 삼계에 퍼져 있는 원들이 단주의 원으로 수렴되어지는지의 여부가 원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논점으로 드러나기에 원의 시작점에서 본 우주관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단주의 원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정리를 하고, 선천 상극지리로 인하여 낳아진 원의 성격 구조를 정리·분류하여 원의 총체적인 구조를 도식화하고, 원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II. 冤의 本質과 構造

1. 冤 概念의 試論적 理解

(1) 典經상의 冤과 關聯된 用語들의 相互關係

<典經>⁴⁾의 내용상에 한글로써 쓰이는 ‘원’은 27개절, 한자로써 쓰이는 ‘冤’은 8개절, 解의 직역에 해당하는 ‘풀어 주노라, 풀리리라, 풀고, 풀었노라, 풀리게 할지니, 풀고, 풀어야, 풀릴지라, 풀어 주셨도다, 풀고자, 풀리고’ 등의 목적어로서 쓰이는 용어는 수십 종류, 解의 意譯에 해당하는 ‘해소하였느니라, 제거하리라’ 등의 목적어로서 쓰이는 용어는 수 종류로 나타난다.⁵⁾

4) 전경의 구성은 행록(行錄)편 오개 장, 공사(公事)편 삼개 장, 교운(教運)편 이개 장, 교법(教法)편 삼개 장, 권지(權智)편 이개 장, 제생(濟生)편, 예시(豫示)편으로 되어 있으며, 총 839개 절과 340 페이지로 되어 있다.

5) <전경>상에서 나타나는 원과 유사용어들 : 걱정, 겁기(劫氣), 겁액(劫厄), 고난(苦難), 난(亂), 독기(毒氣), 뜻(意), 마(魔), 분통(憤痛), 불평(不平), 살(殺), 살기(殺氣), 악척(惡慫), 애원(哀願), 액(厄), 원(冤), 원(願), 원(怨), 원망(怨望), 원심(怨心), 원통(冤痛, 怨痛), 원한(怨恨), 재앙(災殃), 증기(腫氣), 착란(錯亂), 척(慫), 척신(慫神),

이렇게 원과 개념적 유사성을 내포하는 용어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용어 들 간에 상관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으므로 용어들의 상관관계를 정립하여 계통 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번째 정립할 것은 殺, 殺氣 혹은 感, 感神과 같은 용어에서 氣와 神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하여, 殺, 殺氣 혹은 感, 感神을 같은 의미로 쓸 것인지, 다른 의미로 쓸 것인지이고, 두번째 정립할 것은 용어의 뜻이 함축하고 있는 본질의 깊이 정도에 따라 용어들을 분류 및 범주화하고, 각 범주화된 용어들의 뜻이 가지고 있는 외향적 성향에 따라 계통 체계를 정하는 것이다.

원과 관련된 용어들의 많은 부분이 그 자체로만 쓰이기 보다는 氣와 神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 있기에 氣와 神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만 할 것이다.

氣라는 문자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지만 보통 氣는 홀로 사용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개 어떤 말 앞에 붙어서 숙어화된 말이 문헌 도처에서 나타난다.⁶⁾ 이와 같이 氣와 합성되어 나타나는 용어는 氣의 풍부한 친화성을 보여주는 예가 된다.⁷⁾ 전경상의 劫氣, 毒氣, 殺氣, 腫氣등은 氣의 친화성에서 비롯된 용어이므로 氣란 용어를 劫, 毒, 殺, 腫만으로도 의미를 파악 및 전달하는 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神의 구조도 氣와 비슷한데 唯一神觀에서는 神이 홀로 쓰이면서 天과 하느님을 대변하지만, 多神觀에서는 神이 홀로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곧 神 앞에 낱말이 붙어서 신의 格, 신의 役割, 신의 位置, 신의 技能, 신의 職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⁸⁾ 이와 같이 神과 합성되어 나타나는 용어는 굳이 신의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앞의 단어로 인하여 의미 파악 및 전달이 된

한(恨), 화액(禍厄)

- 6) 여러 문헌에 氣와 합성된 용어 : 사기(士氣), 사기(死氣), 사기(邪氣), 살기(殺氣), 신기(神氣), 용기(勇氣), 장기(臟氣), 자기(磁氣), 전기(電氣), 정기(精氣), 정기(正氣), 지기(地氣), 지기(志氣), 천기(天氣), 풍기(風氣), 한기(寒氣), 혈기(血氣), 화기(火氣), 화기(和氣) 등

7) 丸山敏秋 作 박희준 譯, <氣란 무엇인가> (서울 : 정신세계사, 1989), p.29

- 8) <전경>상에 神과 합성된 용어 : 도통신(道通神), 만사신(萬死神), 문명신(文明神), 백복신(百伏神), 보은신(報恩神), 사육신(死六神), 상계신(上計神), 상하신(上下神), 서신(西神), 시비신(是非神), 예고신(曳鼓神), 육장금신(六丈金神), 육정신(六丁神), 음양신(陰陽神), 자기신(自己神), 중계신(中計神), 지하신(地下神), 척신(感神), 개폐추기출입문호도로신(開閉樞機出入門戶道路神), 통정신(通情神), 하계신(下計神), 해원신(解冤神), 호소신(好笑神), 황극신(皇極神), 황천신(黃泉神)등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氣·神이란 용어를 합성하여 사용하면 자연의 근본 구조를 부각시켜 대순진리의 神觀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冤·怨·恨·慼이 단독으로 쓰이면 단지 事物의 性情만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冤氣 怨氣, 恨氣, 慼氣 등과 같이 氣라는 용어가 합성되면 物理量(에너지)의 존재성이 두드러지고, 冤神, 怨神, 慼神, 恨神, 怨恨神 등과 같이 神이라는 용어가 합성되어지면 冤, 怨, 恨, 慼의 본질에 대한 변화는 없지만 그 본질을 가지고 毒, 殺, 怒, 劫, 厄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척’ 하면 ‘남을 못되게 하는 것’이라는 性情의 개념이 부각되지만, ‘척기’ 하면 ‘남을 못되게 하는 기운 즉 에너지의 존재’에 대한 量的인 느낌이 나타나고, ‘척신’ 하면 남을 못되게 하는 척의 性情이 남을 못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憤痛, 亂, 災殃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결국 氣와 神이 합성된 용어는 문장의 의미 전달을 쉽게 할 뿐 본질의 변화는 주지 않기 때문에 해원의 원을 논함에 있어서 氣와 神이 결합된 형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미 구분을 하지 않겠다. 아울러 용어들의 상관성은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대순지침〉에 「有其心 則有之 無其心 則無之(마음에 있으면 있게 되고, 마음에 없으면 없게 된다)」⁹⁾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뜻(意)’은 다른 모든 용어들의 存在 有無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生成되면 願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속에서 생성된 願은 自力 혹은 他力에 의하여 뜻을 이루려고 한다. 여기에서 뜻을 선한 데 두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자력에 둔다면¹⁰⁾ 瑞願의 형태로 나타나

9) <대순지침> (서울 :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p.52

10) <전경> 권지 1장 10절 : 최운익(崔雲益)의 아들이 병으로 인해 사경을 헤매이므로 운익이 상제께 달려와서 배알하고 살려주시기를 애걸하니라. 상제 가라사대 『그 병자가 얼굴이 못생김을 일생의 한으로 품었기에 그 영혼이 지금 청국 반양(淸國潘陽)에 가서 돌아 오지 않으려고 하니 어찌하리오』 운익이 상제께서 병자를 보신 듯이 말씀하시므로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굳이 약을 주시기를 애원하니라. 상제께서 마지 못해 사물탕(四物湯) 한 첩을 지어 구월음(九月飲)이라 써 주시니라. 운익이 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니 아들은 벌써 숨을 거뒀도다. 운익이 돌아간 후에 종도들이 구월음의 뜻을 여쭙었더니 가라사대 『九月 장시황어

고, 뜻의 선악을 구분치 않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타력에 둔다면 哀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願이 내·외부로 기동하면 誠이 필요하게 되고, 誠이 있게 되면 자연히 誠의 對價를 바라게 되므로, 그 대가가 없을 때 願은 冤, 怨, 恨, 憾, 怨望, 怨恨 등으로 발전된다고 본다. 이렇게 발전한 冤, 怨, 恨, 憾, 怨望, 怨恨에서 怨望과 怨恨의 본질을 怨으로 同質 취급하면 冤, 怨, 恨, 憾¹¹⁾으로 압축되어 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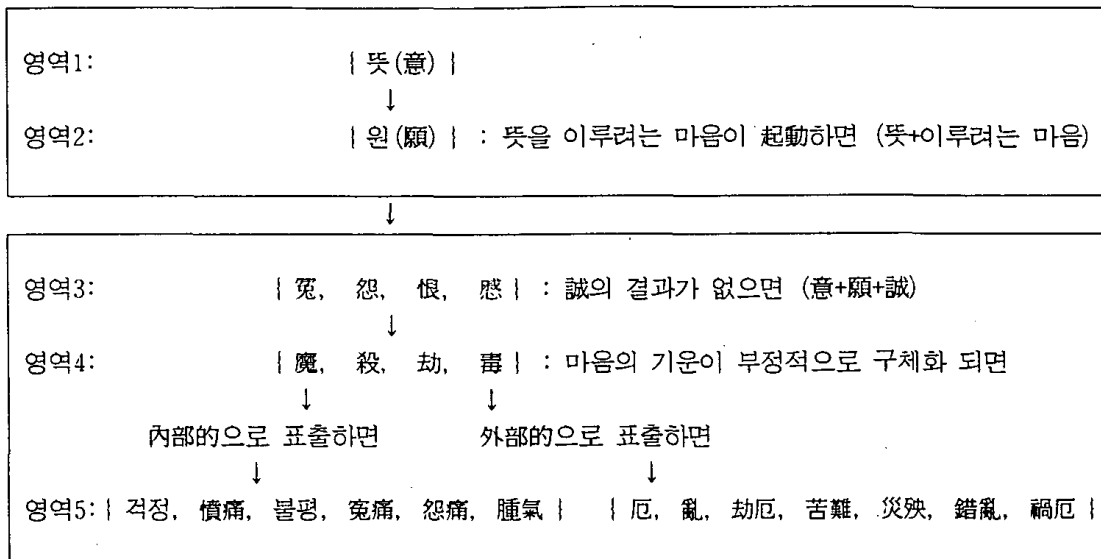
즉 뜻의 씨앗에 內·外部的으로 誠의 有·無라는 이원적 형태로 구분된다. 여기서 誠이 없는 뜻은 해원의 범주안에 넣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해원의 범주안에 들어가는 용어가 있다면 大小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誠이 들어가 있다는 전제가 붙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誠의 대가가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冤, 怨, 恨, 憾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면 원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지금까지 설명된 원칙을 가지고 도식화 시키면 다음과 같다.

여산하(九月葬始皇於驪山下)라 하니 이것은 살지 못할 것을 표시함이다. 그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하여 약을 지어 주었노라』 하셨도다.

<전경> 공사 3장 29절 : 사십 팔일 되는 날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병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애원하기에 상제께서 공사에 전념하시는 중임으로 응하지 아니 하였더니 그 사람이 돌아가서 원망하였도다. 이로부터 동남풍이 멈추므로 상제께서 깨닫고 곧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위안케 하시니라. 이때 상제께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도다.

- 11) 冤, 怨, 恨, 憾은 마음이 갖는 기운인데, 이 기운이 어떤 대상을 害하는 형태로 구체화 되면 魔, 殺, 劫, 毒이 된다. 이 魔, 殺, 劫, 毒이 內部的으로 표출되면 격정, 憤痛, 불평, 冤痛, 腫氣 등으로 나타나고, 外部的으로 표출되면 苦難, 亂, 災殃, 錯亂, 禍厄 등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도표1> 用語들의 系統圖

(2) 冤, 怨, 恨, 憾의 字典的 意味 比較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원의 양상은 다양하다. 즉 해원의 원의 사용 범주는 대단히 넓고 다양하여 용어들로 인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면 원의 개념 정리가 용이하리라고 본다. 그 방법으로 冤, 怨, 恨, 憾의 자전적 의미를 비교 분석하여 서로 간의 개념 유사성을 정리하고 또한 해원상생에서 쓰고 있는 冤으로 의미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전제 조건에서 冤 자형적인 형태를 분석하여 다음에 나오는 원의 분석에 용이함을 주하고자 한다.

	원(冤)	원(怨)	한(恨)	척(憾)
設 文 解 字	굴야(屈也), 종덕토(從一冤), 토재덕부득주익굴절야 (冤在一不得走益屈折也) : 토끼가 一에 갇 혀서 달아나지 못하고 더욱 곤란을 겪는 것을 나타낸다 왕곡지의(枉曲之意): 冤罪(억울함)	에야(恚也), 종심묘성 (從心 聲), 에(恚)는 노야(怒也), 종심규성 (從心圭聲): 원은 성념 (怒)을 표현한다.	원극야(怨極也), 종심 간성(從心良聲) 字源에 의하면 目+匕→良에서 곧 心+良→恨: 마음 속에 깊은 분노가 머물 러(壘) 있다.	설문해자에는 憾字가 없다.
漢 語 大 詞 典	① 굴축(屈縮): 답답하 다 ② 왕곡(枉曲): 억울하 다 ③ 원구(冤仇): 원수 ④ 원혼(冤魂) ⑤ 원한(怨恨) ⑥ 기만(欺瞞): 속이다	① 怨恨: 원망하다 ② 埋怨: 불평하다 ③ 悲傷: 슬퍼하다 ④ 譏諷: 비난하다 ⑤ 仇怨: 증오하다 ⑥ 違背: 위배하다 ⑦ 別離: 이별하다 ⑧ 通 冤, 冤屈: 억울하다	① 怨恨: 원망하다 ② 失悔: 후회하다 ③ 通 違逆: 모질다	① 憂傷: 근심으로 괴 로우 하다 ② 通 親戚
漢 韓 大 辭 典	㉠ 원통할 원, 억울함 ㉡ 원죄원, 억울한죄 ㉢ 원한원, 원수원	㉠ 원망할원 ㉡ 적대시함 ㉢ 무정함을 슬퍼함 ㉣ 원한원 ㉤ 원수원	㉠ 한할한 ㉡ 원한을 품음 ㉢ 유감으로 생각함 ㉣ 뉘우칠한 ㉤ 한한: 원한, 유감	근심할척, 근심척 戚과 통용
國 어 사 전	×	원한(怨恨)의 준말	① 원한(怨恨)의 준말 ② 한탄(恨嘆)의 준말	×
비 고	* 大同小異함. *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 능동적 원 ㉡ 수동적 원 ㉢ 공격적 원	* 大同小異함 * 怨=怨恨으로 사용됨 * 冤의 범주안에 恨을 넣을 수 있다.	* 大同小異함. * 恨=怨恨으로 사용됨 * 후회하다, 한탄하다 는 自虐에서 오고, 자학은 뜻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니 冤의 범주안에 넣 어도 무리가 없다.	* 字典에 뜻이 잘 나타 나지 않으며 '남이 갖 는 나에게 대한 원한'의 뜻으로써 한국인만의 정서로 해석하고자 한 다.

〈도표2〉 用語들의 字典的 意味 比較

도표2 용어들의 字典¹²⁾적 의미 비교에서 보듯 네 가지 용어의 뜻은 大同小異함을 알 수 있고, 그 중 설문해자에서 나타나는 冤이 가장 풍부한 의미

12) 漢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設文解字注>,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4)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漢語大詞典>,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1994)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辭典>, (서울: 民衆書林, 1995)
동아출판사 편집국, <동아 새국어 사전>, (서울: 동아출판사, 1996)

를 함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冤의 字形에서 나타나는 뜻을 좀더 깊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㊸ 토끼(冤)가 움직이려는데 틀(宀)에 갇혀서 답답함; 뜻을 이루려는데 외부의 제약에 의해서 이루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 : 능동적 원,

㊹ 토끼가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틀이 조여옴; 오해나 누명을 덮어 쓰는 데서 오는 원 : 수동적 원,

㊺ 토끼가 자신의 자유로움을 방해하는 틀을 원망함; 뜻을 이루려는데 방해되는 대상을 미워하는 원 : 공격적 원.

여기서 怨, 恨, 憾이 갖고 있는 자전적인 의미가 冤의 세 가지 자형적 의미에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전 및 자형적 의미로만 보아도 해원의 冤에 怨, 恨, 憾의 의미를 통합하여 사용해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冤은 怨, 恨, 憾 및 기타 용어들의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들간의 개념 구분이 필요치 않음을 알 수 있다.

2. 冤의 本質

원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 三界에 펼쳐져 있는 모든 원의 시원이 단주의 원으로 귀일될 수 있느냐가 원의 본질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논점이 된다. 따라서 원의 시작점에서 본 우주관을 먼저 논한 후 단주의 원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1) 冤의 始作點에서 본 宇宙觀의 意味

기성의 종교에서는 인간 세상의 타락상을 해석함에 있어 우주의 구조적인 모순에 그 원인을 두는 경우는 살펴 볼 수 없다. 단지 사람의 도덕성이 결여됨으로 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대순사상은 천하가 웅패의 술로 인하여 당한 괴로움과 창생이 진멸지경에 빠지는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우주의 모

순된 구조에 있음을 교설하고 있다.¹³⁾ 그렇지만 단주의 원이 인간 세상을 파멸로 가져 갔다는 전경상의 구절은 다른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대순사상은 인간과 자연 양쪽 모두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독특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이 모순되지 않고 종합적이고 통일적이며 순차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순사상적 우주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해석의 요체는 첫째, 선천 상극지리의 시작은 언제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전경에서 冤 역사의 첫 장인 단주의 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셋째, 전경의 내용¹⁵⁾은 史記本紀에서도 나타나는데, 단주보다 400여 년 앞선 시대에도 전쟁이 있었음이 보인다.¹⁶⁾ 전쟁은 곧 원을 발생시

13) <전경> 공사 1장 3절 :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전경> 교법 3장 34절 : 선천에서는 상극지리가 인간과 사물을 지배하였으므로 도수가 그릇되어 제자가 선생을 해하는 하극상(下克上)의 일이 있었으나 ...

<전경> 공사 1장 11절 : 묵은 하늘은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었도다. 이후에 일용 백물이 모두 핏절하여 살아 나갈수 없게 되리니 이제 뜰어 고치지 못하면 안되느니라.

14) <전경> 공사 3장 4절 :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는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져서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15) <전경> 교법 3장 30절 : 치우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가指南車(指南車)로써 치난하였도다.

16) 정범진 외역, <史記本紀>, (서울:도서출판 까치, 1994), pp.7-8에 軒轅之時, 神農氏世衰, 諸侯相侵伐, 暴虐百姓, 而神農氏弗能征, 於是軒轅乃習用干戈, 以征不享, 諸侯咸來賓從, 而蚩尤最爲暴, 莫能伐, 炎帝欲侵陵諸侯, 諸侯咸歸軒轅, 軒轅乃修德振兵, 治五氣, 藝五種, 撫萬民, 度四方, 教態獬豸獮貍, 以與炎帝戰於阪泉之野, 三戰, 然後得其志, 蚩尤作亂, 不用帝命, 於是黃帝乃徵師諸侯, 與蚩尤戰於涿鹿之野, 遂禽殺蚩尤

현원의 시대는 신농씨의 세력이 쇠해져가는 시기였으므로 제후들은 서로 침탈하고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으나 신농씨는 이들을 정벌할 수가 없었다. 이에 현원은 창과 방패 등 무기의 사용을 익혀서 신농씨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는 제후들을 징벌했다. 그 결과 제후들은 모두 현원에게 복종했으나 다만 치우만은 가장 포악하였으므로 현원도 그를 토벌할 수가 없었다. 염제가 제후들을 침범하려고 하였

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의 시작인 단주의 원보다 400여 년 앞 선 황제와 치우간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와 같은 논의는 원의 본질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만약 원이 상극지리를 낳았고, 그 상극지리가 역사 이래로 모든 원을 생성하는 원인이 되었다면 생성된 모든 원은 본질의 원으로 귀일이 가능하지만, 태고 때 부터 우주의 법칙이 상극지리였고 그 상극지리가 원을 생성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면 후세에 파생된 모든 원은 단주의 원으로 귀일 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주의 원을 원인으로 하여 파생된 원은 후세에 나타난 전체의 원 중에서 일부의 영역만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상제님의 해원공사를 하는 시점에서 본 모든 원의 본질은 단주의 원에 있다는 논리를 펴려면 단주의 원이 상극지리를 낳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된다.

이러한 관점은 단주의 원을 통하여 원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음을 말해 줄 뿐 만 아니라, 단주의 원에서 파생된 그림자의 원을 살펴본다는 것은 逆으로 단주의 원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의하여 원의 시작점에서 본 우주관의 의미는 매우 크다.

앞에서 질의되어진 첫째 질문과 둘째 질문을 정리하면 ‘단주의 원은 상극지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아니면 ‘상극지리는 단주의 원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의 문제로 압축 된다. 여기서 ‘단주의 원은 선천 상극지리로부터 비롯되었다’ 는 가정을 한다면 반드시 단주의 원이 발생하는 시기와 상극지리의 시작 시기의 시간차는 거의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간차가 있으면 상극지리의 시작과 동시에 인세에 원을 바로 발생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단주의 원이 시작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자의 논점은 의미를 갖기가 어렵다고 본다. 즉 단주의 원이 시작점이 되려면 단주의 원이 발생하기 바로 직

으므로 제후들은 모두 현왕에게로 귀순했다. 현왕은 이에 덕을 닦고, 병사를 정비했으며, 오기를 연구했고, 오곡을 심어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사방의 토지를 측량, 정리하였다. 또한 곰(熊), 비(羆), 비(貔), 휴(貅), 추(獠), 범(虎) 등의 사나운 짐승들을 훈련시켜서 판천(阪泉)의 들에서 염제와 싸웠는데, 여러 번 싸운 후에야 드디어 뜻을 이루었다. 치우가 또다시 난을 일으키며 황제의 명을 듣지 않자, 이에 황제는 제후들로부터 군대를 징집하여 탁록(涿鹿)의 들에서 싸워서 결국은 치우를 사로잡아 죽였다.

전에 상극지리가 시작되는 시점이어야 된다. 이 사실은 증명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헌에서 나타나는 요·순 태평시대와 부합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상극지리는 단주의 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전경의 교설은 상극지리의 시작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단주의 원이 씨앗이 되어 이 씨앗이 원을 무성하게 만들고 이 무성한 원은 상생의 우주 법리를 상극의 우주 법리로 변환시켰다는 논리를 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易學的 해석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¹⁷⁾

또한 道主께서 내리신 傳教¹⁸⁾에 의하면 B. C2694 (丁巳)년 부터 A. D1923 (癸亥)년 까지 一元으로 잡고 있다. 일원은 初統(B. C2694 - B. C1155), 中統(B. C1154 - A. D384), 季統(A. D385 - A. D1923)으로 나누어지는데, 초통 1539년 동안은 성인의 정치가 그 맥을 이었고, 증통 1539년 동안은 정치

17) 李正浩, <正易과 一夫> (아세아문화사, 1985) p.8에, 「周易 說卦傳에 “天地定位 山澤通氣 雷風相薄 水火不相射 八卦相錯 數往者順 知來者逆 是故易逆數也(천지가 위치를 정하고, 산과 못이 氣를 통하고, 뇌와 바람이 서로 적게 일으키고, 수화가 서로 침범치 않고, 팔괘가 서로 공경하며 삼가하고, 가는 것을 셈함은 순리이고, 오는 것을 얹은 역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로 역은 거슬러서 셈하는 것이다) … 乾以君之 坤以藏之(건은 군이 되게 하고 곤은 간직하게 한다)”란 말이 있다. 이것을 先儒나 학자들이 伏羲八卦圖로 풀고 있다. 다음에 오는 “帝出乎震 齊乎巽 相見乎離 致役乎坤(제는 진에서 나오고, 손에서 가지런히 하며, 이에서 서로 보고, 곤에서 역할을 다하며) … 艮東北之卦也 萬物之所成終而所成始也 故曰成言乎艮(艮은 동북방의 괘이고, 만물의 終을 이루는 곳이며 始를 이루는 곳이다. 그런 고로 艮에서 성취한다고 한다)”은 文王八卦圖로 풀고 있다」고 설명되어지며, 이 설명된 것에 논자의 대순진리적 해석을 첨부하면 ‘周나라 문왕이 說한 陰陽 相剋의 문왕팔괘도는 周나라 건국 당시의 천지 운행의 법리를 밝힌 것이므로, 이것은 단주로부터 천여년 후의 일이다. 즉 河圖龍馬에서 太昊 伏羲氏가 상생의 우주 법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복희팔괘도를 찾아 내었다면, 상극의 우주 법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는 문왕 팔괘도는 문왕으로부터 천여년 전 神龜洛書에 그 根源을 두고 있다. 그 神龜洛書는 앞으로 시대를 豫示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발견 시기 조차도 단주의 원이 발생한 바로 직후의 일인 것이다’ . 이러한 사실은 상극지리가 단주의 원으로부터 나왔다는 논지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한다.

18) <전경> 교운 2장 26절 : 傳教에,

七閏十九歲爲章	二十七章是會當	三會爲統	三統爲元	循環往復互無疆
四千六百十七年前	丁巳軒轅立極肇斯元	萬像萬事皆有是	諸法諸書總此源	
傳器項嚳助華禹	初統初會世世聖	出萬暉同發明	春回品物共華盛	初統之中降中季
聖不承承但一時				
禹後有湯湯後文	一會一聖應會期	中統由來世漸降	聖不道行但教傳	釋後有孔孔後
一會一教各門筵				
季統教亦無肇聖	惟有述聖開啓來	佛梁儒宋耶羅馬	一教一昌應會回	

와 교화가 분리되어 성인의 도가 가르침으로만 전해지고, 계통 1539년 동안은 성인의 정치와 성인의 가르침이 다 끊어진다고 했다. 또 전교에서 황제 현원씨로부터 소호금천씨(名:현효), 전육고양씨(名:전육), 제곡고신씨, 제요도당씨(名:방훈), 제순유우씨(名:중화), 우임금에 이르는 初統 初會 500여 년 간은 代代로 聖人政治라고 하셨다.

전교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 사회에 오백여 년 간 성인 정치가 연속적으로 펼쳐진 시대를 상극지리의 시대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요·순·우 이후의 역사에서 연속적인 성인 정치사는 어느 문헌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요·순·우 시대를 기점으로 하여 우주 법리에 변화의 조짐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성인 정치의 맥이 끊어지는 시점도 초통의 終인 동시에 중통의 始에 해당하는 周 文王 시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전교의 설명과 주역의 이치가 부합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단주의 원이 선천 상극지리를 낳았고, 선천 상극지리는 인간 세상을 파멸로 가져갔다’는 해답은 황제와 치우간의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나므로 세째 질문이 提起된다. 따라서 단주의 원이 선천 상극지리를 낳았다는 전경상의 구절¹⁹⁾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려면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명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점은 역의 원리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데, 요·순 이전 시대는 상극을 내포한 상생의 시대로 보아야 될 것이다. 즉 복희팔괘도는 상생의 우주 법리로 풀고 있지만 완전한 상생의 시대는 아니다.²⁰⁾ 단지 大勢의 우주 법

19) <전경> 교법 1장 54절 :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인간 싸움이 신들의 싸움으로 번지므로 인하여 천지의 구조가 상극으로 변모하고, 이 상극 구조는 인간을 파멸시킨다는 논리)

20) <正易과 一夫> pp8-9에, 「(1) 乾北坤南이 되어야 定位임에도 불구하고 伏羲八卦圖의 乾은 倒生한데로의 형상을 그린 만큼 一乾이 남에 위치하고 八坤이 북에 위치한다. (2) 艮東兌西가 되어야 通氣임에도 불구하고 복희팔괘도의 七艮은 서북에 그쳐 있고 二兌는 동남에 위치한다. (3) 서북과 동남이 相薄의 位置임에도 불구하고 복희팔괘도의 震巽은 동북과 서남에 위치하여 상박되어 있지 않다. (4) 水火가 不相射하려면 坎離가 東西 상사를 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희팔괘도에서는 離東坎西로 水火가 동서에서 상사하고 있으니 이것을 불상사이라고 하기 어렵다.」

<正易과 一夫> pp.141-142에, 「복희팔괘도의 一乾에서 四震까지의 初畫은 다 같이 陽이고 八坤에서 五巽까지의 初畫은 다같이 陰으로 되어 있다. 만물생성의

리인 상생 속에 小勢로 상극이 내포되어 있으니, 상극적인 문제는 상생의 법칙하에 자연히 풀렸다는 견해이다. 즉 전쟁에서 비롯된 원은 세대의 추이에 따라 대세의 상생 우주 법리에 의하여 풀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주의 원도 대세의 상생 우주 법리에 의하여 풀려야만 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서 대순진리의 신앙관적인 해석이 나온다. 즉 ‘天意’가 무엇인지는 본 논고에서 논의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논리에 의하면 단주의 원부터는 원이 상생의 법에 의하여 풀리지 않고 오히려 우주 법리를 상생에서 상극으로 변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2) 丹朱의 冤에 대한 分析

단주의 원이 본질이라면 삼계에 채워진 원은 그림자가 된다. 따라서 다음의 구절에서 나타나는 단주의 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의 본질을 규명해보겠다.

예문1 :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를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의 시작이고 원(冤)의 역사의 첫 장인 요(堯)의 아들 단주(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는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전경 공사3/4)

제일차적 순서를 의미하는 이 초획이 양과 음으로 密著하여 等質 等量을 나타내니 이 卦圖는 일종의 太極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 卦圖를 또한 太極圖라고 한다. 周易 繫辭傳 上에 ‘易有太極하니 是生兩儀라’ 하였은즉 이것은 또한 兩儀卦圖이기도 한것이다. 어찌든 태극이 양의를 생한다 함은 만물생성의 기본원리를 말하여 주는 것이니 복희팔괘도는 生卦圖임이 분명하다. 만물이 생할 때에 倒生하므로 필연적으로 一乾八坤의 질서를 취하여 머리부터 나오고 胴體가 뒤따름을 보여주고 있다. …」

解説: 결국 복희팔괘도는 生成을 위한 상생의 卦圖이지만 완성을 전제로 하는 불완전한 초기 상생 卦圖이다.

이 구절을 내용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음,
- ㉡ 인류의 기록의 시작²¹⁾,
- ㉢ 단주가 不肖하다 하여 요가 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물려줌,
- ㉣ 단주는 天下事에 뜻을 두었지만 아버지 요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지 못하여 뜻을 이루지 못함의 원을 품음,
- ㉤ 원의 역사의 첫 장인 요의 아들 단주의 원이 됨,
- ㉥ 천하를 물려받지 못함의 원인을 순에 두고 순을 원망함,
- ㉦ 단주의 원망으로 因하여 순을 창오에서 봉케함,
- ㉧ 순의 죽음을 슬퍼한 두 왕비(娥皇, 女英)는 소상강에서 자살함,
- ㉨ 단주와 순, 아황, 여영의 사이에서 발생한 원으로 인하여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차서 인간이 파멸됨,
- ㉩ 단주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림.

여기서 ㉢부터 ㉨까지는 ㉠의 理致대로 連鎖反應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단주가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열할 수 있다.

- 첫째 천하를 물려 받고 싶은 뜻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마음,
- 둘째 천하를 물려 받지 못함의 원인을 순에 두고 순을 원망하는 마음,
- 셋째 천하를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 요를 원망하는 마음(가능성만 있음)

여기서 둘째, 셋째 마음은 요와 순을 대상으로한 단주의 인간 개인적인 원한이 될 수 있다. 이런 개인적인 원한은 첫째의 마음 가짐에서 비롯되므

21) <書經> : 古代 二帝三王(요, 순, 우왕, 탕왕, 문왕)과 그밖의 歷代 王의 治績을 散文 形式으로 기록한 典籍. 史官에 의해서 기록된 인류 최초의 歷史書라 할 수 있으며 시작은 堯典부터다

로 단주가 천하를 얻게 된다면 자연히 소멸 될 것이다. 또한 이 원한은 이차적으로 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상극의 주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주가 갖는 첫번째 마음 가짐이 원의 본질이며 씨앗이다. 이 원의 본질을 가지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²²⁾으로 나누기는 어렵다. 예문1 문장의 단순한 해석상으로 보면 단주가 천하를 얻으려는 욕심이 돋보이는 면이 나타나고, 이것은 원의 부정적인 면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예문2,3,4에 나오는 것은 단주의 뜻이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암시한다.

예문2 : 「바둑의 시조 단주(丹朱)의 해원도수를 회문산(回文山) 오선위기혈(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오.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 ……」 ;
(전경 공사2/3)

예문3 : ……기변(碁變)은 당요(唐堯)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 부터 대운이 열려 돌아날지니라. …… ;
(전경 공사3/6)

예문4 : 현하 대세가 오선위기(五仙圍碁)와 같으니 두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두 신선은 각기 혼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편을 혼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말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漢高祖)는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으니 우리나라는 좌상에서(座上)에서 득천하 하리라.」 ;
(전경 예시 28)

위의 예문2에 ‘바둑의 시조 단주의 해원도수를 회문산 오선위기혈’, 예문3에 ‘기변은 당요가 창작하여 단주를 가르친 것이므로 단주의 해원은 오선위기로 부터’, 예문4에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에서 유추하면

22) 肯定的 : 남을 잘되게 하는 것, 否定的 :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 또는 남을 해악케 하는 것

바둑판 = 천하(땅),

바둑돌 = 창생(만백성),

주인 신선 = 천하의 주인(단주),

바둑판은 天元점을 제외하면 360점 = 후천 오만년(후천의 일년은 360일)

의 등식이 성립 된다고 본다. 즉 요임금이 단주에게 바둑을 가르친 것은 후천의 천하 주인이 단주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문2, 3, 4 뿐만 아니라 채지가²³⁾의 ‘뱃노래’와 ‘초당의 봄꿈’이라는 歌詞에서도 단주가 四千餘年 동안 뜻을 이루지 못하고 대접만 잘 하는 주인 신선이 됨을 암시하고 있다.²⁴⁾ 따라서 “단주가 불초하다”는 堯의 말을 달리 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즉 후천 五萬年을 맡게 될 인물로 단주가 내정 됨을 알고 있는 요의 입장에서 볼 때 결코 書經에 나오는 역사적 사실과 실제는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아버지 요의 말은 만아들 단주에 대한 겸양의 표현²⁵⁾

23) 李書九(1754-1825), <채지가> : 채지가는 전라감사이었던 이서구의 작이라고 전해 오는데 그 내용이 도인들의 수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행하게 되었다.

24) <채지가>, 뱃노래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일이 허무하다/ 강동자제 팔천인은 도강이서 하울적에/
침선과부 결심하고 삼일량을 가지고서/ 백의산하 충돌할제 팔년풍진 겪어가며/
역 발 산 기개세는 초패왕의 위풍이라/ 대사성공 하자더니 천지망아 할일없네/
계 명 산 추야월에 옥소성이 요란터니/ 팔천제자 흩어지니 우혜우혜 내약하오/
오강정장 배를대고 급도강동 하렸으나/ 전쟁사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원통하다/
강구연월 격양가는 당요천하 송덕할때/ 만승천자 어데두고 바둑판이 웬일이고
자미원에 몸을붙여 후천운을 기다리니/ 여 액 이 미진하여 설상가상 되었구나/
할일없다 이내운수 지성발원 다시해서/ 구 천 에 호소하니 해원문이 열렸구나/
...

<채지가>, 초당의 봄꿈에,

초 당 에 높이누워 일장춘몽 깊이들어/ 한 곳 에 다다르니 오선위기 하는구나/
한노인은 백기들고 한노인은 흑기들어/ 한노인은 백기훈수 한노인은 흑기운수/
초한풍진 일어나니 상산사호 아니련가/ 한노인은 누구신고 주인노인 분명하다
주인노인 체면보소 시절풍류 그뿐이라/ 상승상부 결승할제 양편훈수 못하고서/
칭가유무 공제할제 손님접대 그뿐이라/ 수는점점 높아가고 밤은점점 깊어간다/
원 촌 에 닭이우니 태극성이 비쳤구나/ 개가짓고 날이새니 각자귀가 하는구나
주인노인 거동보소 일장춘몽 깨어보니/ 상산사호 네노인은 저갈대로 다가고서/
바둑판과 바둑돌은 주인차지 되었구나/ 요지자는 단주로서 바둑판을 받을적에/
후천운수 열릴때에 해원시대 기다리라/ 정녕분부 이러하니 그이치를 뉘알소냐
오만년지 운수로다 그 아 니 장할시구/ ...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단주는 선천 歷史書의 사실과 달리 四千餘年間 단주의 인물상이 왜곡²⁶⁾되었음을 유추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주의 또 다른 원의 발생 동기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요·순시대에 단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원을 모두 나열하면

일차적(단주 입장에서 본) 원,

첫째 천하를 물려 받지 싶은 뜻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원

(긍부정적 측면이 다 있음),

둘째 천하를 물려 받지 못함의 원인을 순에 두고 순을 미워함에서 오는 원 (부정적 측면만 있음),

셋째 천하를 물려 주지 않은 아버지 요를 미워함에서 오는 원

(가능성만 있음),

네째 단주의 인물상이 역사 이래로 왜곡됨으로 생기는 원

(가능성만 있음),

이차적(상대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 단주 입장에서는 척이 됨

첫째 단주의 원에 의하여 죽음을 당한 순이 단주를 향하여 갖는 원

(가능성만 있음),

둘째 순의 죽음을 슬퍼한 아황과 여형이 오빠 단주를 향하여 갖는 원

(가능성만 있음)

이 된다. 이상에서 보듯 단주의 원 중에서 가장 본질적 의미는 단주가 뜻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원이다. 이것이 원의 본질이며 종자인 것이다.

25) <書經> 堯典에, 「(帝曰 疇咨時하야 登庸고 放帝曰 胤子朱가 啓明하나이다. 帝曰 吁라 嚚言公이니 可乎아)제계서 문자오대 때를 순옹해 등용할 인물이 누구일꼬. 방제가 이르되 만아드님 단주가 총명하심을 갖추었나이다. 제계서 이르시기를 아! 충성심과 믿음이 적으며 말다툼하거니 가하랴」 라는 조문에서 방제가 요임금에게 단주에게 임금을 물려 줄 것을 천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기록이 나온다.

26) <書經> 大禹謨에, 「(禹曰 … 無若丹朱傲 性慢遊 是好 傲虐 是作 罔晝夜 額額 罔水行舟 明淫于家 用殄厥世 …)우가 이르되 … 단주와 같이 거만하지 마소서, 게으르게 놀기를 좋아하며 거만하고 포악함을 지으며 낮과 밤이 없이 쉬지 않고 물 없는 데 배를 띄우며 벗하여 집에서 음하여 이로써 그의 대를 끊지니이다.」

그렇다면 원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고, 그 본질에서 파생된 원을 함축할 수 있는 漢字語는 무엇인가? 여기서 慼은 상대가 나에게 갖는 복수형의 원한만을 의미하여 단주의 원을 나타냄에 적당치 않고, 怨은 상대를 공격하는 복수형의 뜻만 있어 폭이 좁고, 恨은 뜻의 폭이 가장 넓지만 단주가 갖고 있는 원의 의미를 전달함에 약하고, 冤은 토끼(冤)가 보자기(宀)에 갇혀서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글자는 단주의 뜻이 주변 환경적인 여건에 갇혀서 펼치지 못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자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의 본질 규명을 통해서도 冤이라는 한자의 적합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3. 冤의 構造

단주의 원에서 파생된 그림자의 원에 대한 구조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단주의 원에서 나타난 양상과 그림자의 원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닮은 꼴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앞 단락에서 보듯 모든 원이 단주의 원으로 귀일 된다는 논지에 의하면, 모든 원은 단주의 원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그림자로 보아야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림자의 원을 분석하면 총체적인 원을 정의하기가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원의 다양한 구조는 본 논문에서 논하지 않고 단지 성격적인 면만 살펴보는 데 그 범주는 긍·부정적 측면으로 나누면 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원의 긍정적인 면은 사람들에게 부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의 부정적인 면만 선입관으로 잡혀 있다. 따라서 전경상에 나타나는 원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찾아 정리하고, 더불어 원의 부정적인 면을 찾아 정리하여 원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려고 한다. 그리고 유사 용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긍·부정적인 면으로 범주화 및 분류하여 같이 보이려고 한다.

(1) 肯定的 側面의 冤

1) 원·冤으로 나타나는 冤

전경상에 긍정적 측면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한글 ‘원’ 과 한자 ‘冤’ 을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5에 ‘천상에서 온갖 묘법을 배워 인세에 베풀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진묵의 冤’, 예문6에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고 싶어하는 神人の 원’, 예문7에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은 김경흔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원’, 예문8에 ‘六藝를 통하지 못한 공자의 나머지 제자들이 도를 닦았지만 도통을 하지 못한 원, 도를 닦았지만 석가의 제자 오백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도통을 하지 못한 원’, 예문9에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신명의 원’ 등은 남을 잘 되게 하고 나아가서는 전 우주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원이다. 이런 원은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예문5 : 진묵(震默)이 천상에 올라가서 온갖 묘법을 배워 내려 인세에 그것을 베풀고자 하였으나 김 봉곡(金鳳谷)에게 참혹히 죽은 후에 원(冤)을 품고 동양의 도통신(道通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화 계발에 역사하였느니라 이제 그를 해원시켜 고국(故國)으로 데려와서 선경(仙境) 건설에 역사케 하리라.; (전경 권지2/37)

예문6 : 이 세상에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신인(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전경 교운1/17)

예문7 : 상제께서 삼월 어느날 가라사대 「지금은 신명 해원시대니라. 동일한 五十年 공부에 어떤 사람을 해원하리오. 최 제우는 경신(庚申)에 득도하여 시천주(侍天呪)를 얻었는 바 기유(己酉)까지 五十年이 되니라. 충남(忠南) 비인(庇仁)사람 김 경흔(金京訢)은 五十年 공부로 태을주(太乙呪)를 얻었으되 그 주문을 신명으로부터 얻을 때에 그 주문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시니 이어서 「이 두 사람 중의 누구를 해원하리오」; (전경 교운1/20)

예문8 : 공자(孔子)는 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²⁷⁾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라; (전경 교운1/34)

27) 司馬遷·李公麟 原著 李讚九 編註, <72 孔子제자> (서울: 동신출판사, 1992). pp.225-226. 「공자의 신통(身通) 제자의 수가 몇명이나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다. 81說(孔子家語), 77說(史記), 76說, 72說, 70說 등이다. 이 가운데서 <集註論語序說>에 의거 72說 유력시 된다. 즉 “弟子 | 蓋三千焉 身通六藝者 | 七十二(제자가 대략 삼천이요, 몸에 육예를 통한자가 72인이다)” (<사기>의 또 다른 <공자세가>에도 72人으로 나타남)」

예문9 :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 유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으로 양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오.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전경예시22)

2). 恨으로 나타나는 冤

전경상에 나타나는 恨의 뜻이 부정적 면으로 나타나는 구절도 몇 개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 면이 많다. 그것은 ‘韓民族의 恨에 대한 情緒’²⁸⁾에서

28) 천이두, <한의 구조 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p.51에, 「한국적 恨은 그 상위 개념으로서의 恨(怨·嘆)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끊임없는 초극의 과정을 통하여 긍정적 속성(情·願)을 이룩해 간다. 한국적 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찾게 된다. 이처럼 한국적 恨이 공격적·퇴영적 속성으로부터 출발하되 끊임없이 질적 변화를 지속하여 우호성·진취성으로 지향하게 되는 것은, 한국적 恨이 그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생성의 기능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른바 한국적 恨의 참된 독자성은 이 내재적 속성으로서의 가치 생성의 기능을 구명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그 가치 생성의 기능이란 ‘삭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계서 pp.40-41에, 「‘한(恨)’은 ‘원(怨)’이 아니다. 원망과 증오가 서려 있는 ‘원’이 아니다. 한국인의 ‘한’은 ‘원(願)’에 바탕을 둔다. 원망과 증오가 모여서 걸러지고 여과(濾過)되어 증류된 깨끗한 물이다. 모든 색이 모이면 검정색이 되지만 모든 색이 없어지면 흰색이 된다. 주름진 어머니의 흰색 치마폭에서 보이는, 희다 못해 푸르게 보이는 서러움이 바로 ‘한’이 아닌가 싶다. (劉賢鍾, 「한 뿌리 한 새암」)」

상계서 p.46에, 「이어령은 한을 일러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루지 못하였다는 데서 오는 좌절감이 한의 한 중요한 속성을 이루지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기어코 이루겠다는 꿈으로 간직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중요한 속성을 이룬다. 좌절에서 오는 설움, 그것이 한의 어두운 면이라면, 그 좌절을 기어 이 딛고 일어서려는 질긴 꿈은 한의 밝은 면이다. 그리고 한의 이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은 이원적으로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원적 상승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적 한의 역설적 속성이 있다.」

李圭泰, <한국인의 의식 구조 2>, (서울: 신원문화사, 1993), p.201에, 「한국인의 ‘한’이 차지하는 의미 공간은 중국의 그것보다 훨씬 넓고 크다. 왜냐하면 한국인을 다스려온 문화나 가치관은 외부 충격에서 주어진 긴장의 외향 처리를 不德시했기에 처리 공간이 확장되고 따라서 넓을 수밖에 없었다. 구미인은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한 납득이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이견이 있거나 할 때, 그 외부 충격에 대해 자신을 대립시키는 외향 처리를 잘한다. 그러기에 원한으로 남는다는 법이 별반 많지 않다.」

비롯되는데 한국인의 한은 가슴에 담고 있는 내용물의 긍·부정을 떠나서 그 내용물의 삭임으로 인하여 긍정적이고 밝은 면으로 化하는 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측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恨의 구절을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10과 11에 ‘남을 잘되게 하려는 데 뜻을 두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전명숙의 恨’, 예문12에 ‘천하를 살리고자 뜻을 두고 노력을 다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원이 된다는 상제님의 한’, 예문13에 ‘인간에게 복을 주고자 백방으로 노력을 하여 보지만 그 복을 받을 사람이 없음을 안타까워 하는 한’, 예문14에 ‘아들인 순은 역사 이래로 大孝子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고수에 대한 惡父의 낙인을 벗기지 못하여 안타까워 하는 순임금의 한’, 예문15에 ‘후세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자탄하는 탕자의 한’ 등은 남을 잘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한이다. 이런 ‘한’은 긍정적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원이다.

예문10: 전 명숙이 거사할 때에 상놈을 양반으로 만들고 천인(賤人)을 귀하게 만들어 주려는 마음을 두었으므로 죽어서 잘 되어 조선명부가 되었느니라.; (전경 교범1/2)

예문11: 전명숙과 최수운의 원을 풀어 주셨도다. 이 곳에서 전명숙이 잡혔도다. 그는 사명기(司命旗)가 없어서 포한(抱恨)하였나니 이제 그기를 세워주고 해원케 하노라 ... 최수운을 해원케 하셨도다.; (전경 공사3/2)

예문12: 「... 목전의 일만을 심량없이 하다가 말래지사(末來之事)가 같이 많으면 그 아니 내 한(恨)인가.」 (전경 공사3/21)

예문13: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전경 교범2/4)

예문14: 우순(虞舜)이 대효라 일렀으되 그 부친 고수(瞽叟)의 이름을 벗기지 못하였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오; (전경 교범1/44)

예문15: 옛날에 어떤 탕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자신이 방탕하여 보낸 허송 세월이 회과 자책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헛되게 보내어 후세에 남

김이 없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 하리오.;

(전경 교법

3/16)

(2). 否定的 側面의 冤

1) 主體的 冤

冤, 怨, 恨의 사전 및 자형적인 의미에서 보듯 원은 거의 다 부정적 측면이 보인다. 여기서 부정적 측면의 원은 대체로 자신의 이익, 부귀, 영화에 뜻을 두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것이 많았고, 또한 그 뜻을 이룸에 방해가 되는 존재를 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정적 측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한글의 ‘원’, 한자의 ‘冤’, ‘怨’, ‘怨恨’, ‘恨’을 전경상에서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어 돈을 빼앗으려는 노름꾼의 욕심에서 비롯된 원²⁹⁾, 서당 아이가 한 개인 상제에게 갖는怨恨³⁰⁾, 왕후장상을 꿈꾸고 동학 운동에 참가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살해 당한 동학도의怨恨³¹⁾, 夷民族 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받아 왔던 漢族이 청 나라에 갖는怨恨³²⁾, 포부를 이루지 못한 역신의怨恨³³⁾, 중천신은 황천

29) <전경> 권지 1장 18절 : 상제께서 김 덕찬·김 준찬 등 몇 중도를 데리고 용두리에서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곳에 드나드는 노름꾼들이 돈 팔십냥을 가지고 저희들 끼리 윗판을 벌리기에 상제께서 저희들의 속심을 꿰뚫고 중도들에게 가라사대 「저 사람들이 우리 일행 중에 돈이 있음을 알고 빼앗으려 하나니 이 일로써 해원되나니라」 하시고 돈 五十냥을 놓고 윗을 치시는데 순식간에 八十냥을 따시니라. 품삯이라 하시며 五푼만을 남기고 나머지 돈을 모두 저희들에게 주며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방탕한 자의 일이니 속히 집으로 돌아가서 직업에 힘쓰라」 저희들이 경복하여 허둥지둥 돌아가니라.

30) <전경> 행록 4장 54절 : 내가 어려서 서당에 다닐 때 이웃 아이와 먹으로 장난을 하다가 그 아이가 나에게 지고 울며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 서당에 오지 않고 다른 서당에 가서 글을 읽다가 얼마 후 병들어 죽었도다. 그 신이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나에게 해원을 구함으로 그럼 어찌 하여야 하겠느냐 물은 즉 그 신명이 나에게 왜복을 입으라 하므로 내가 그 신명을 위로 하고자 입은 것이니라.

31) <전경> 공사 2장 19절 : 본래 동학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주장하였음은 후천 일을 부르짖었음에 지나지 않았으나 마음은 각기 왕후장상(王侯將相)을 바라다가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끌려가서 죽은자가 수만명이라 원한이 창천하였으니 그 신명을 그대로 두면 역도(逆度)에 걸려 정사가 어지러워지겠으므로 그 신명들의 해원 두목을 정하려는 ... 이 자리로 부터 왕후장상의 해원이 되리라.

32) <전경> 공사 3장 18절 : 「... 대중화(大中華)의 산하(山河)와 백성이 이적(夷狄...오랑캐)의 칭호를 받는 청(淸)에게 정복되었으니 대중화에 어찌 원한이 없겠나 이까. 이제 그 국토를 회복하게 하심이 옳으리라 생각하나이다.」 상제께서 무릎을 치시며 칭찬하시기를 「네가 재판을 올바르게 하였도다. 이 처결로써 중국이 회복하리라」 하시니라. 원일은 중국의 해원 공사에만 치중하시는가 ...

신에게 물과 밥을 얻어 먹고 왔기에 그 서러움이 매우 심하였을 것이며 그 서러움으로 인하여 중천신이 황천신에게 갖는 怨恨³⁴⁾,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노력을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移毛作을 전해 조선에 이득을 줌으로 인하여 갖는 恨³⁵⁾ 등이 있는데, 이런 원은 남을 해롭게 하므로 부정적 측면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2) 客體的 冤

대순진리회요람에 ‘憾은 나에게 대한 남의 怨恨³⁶⁾’이라는 척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 척이 갖는 性情은 怨恨과 동일시 할 수 있지만, 그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는 다르다. 즉 내(我)가 남(他)을 미워하는 마음이 원한으로 표현 되어진다면, 남(他)이 나(我)를 미워하는 마음은 척으로 표현 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척의 작용 원리³⁷⁾와 實例들³⁸⁾을 전경상에서 보

33) <전경> 교법 3장 6절 :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 하였거늘 …」.

34) <전경> 공사 1장 29절 :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 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하노라」.

35) <전경> 예시 74절 : 임진 왜란 때 일본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가지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삼한당(三恨堂)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一한이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二한이요. 세째는 모 심는 법을 가르쳤음이 三한이라.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여 저희가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一한이 풀리고 다음 인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 함으로써 二한이 풀리고 세째로는 고한삼년(枯旱三年)으로 백지 강산(白地江山)이 되어 민무추수(民無秋收)하게 됨으로써 三한이 풀리리라.

36) <大巡眞理會要覽> p.19에, 「憾은 나에게 대한 남의 怨恨이니 곧 남으로 하여금 나에게 對하여 怨恨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미워하는 것이나 남의 好意을 거스리는 것이 모두 척을 짓는 行爲 …」

37) <전경> 교법 2장 44절 :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라.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 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38) 1 : 상제께서 경오에게 「내가 그대들에게 돈 칠십냥이 있음을 알고 청구한 것인 바 왜 그렇게 속이느뇨」고 말씀하시니 그가 정색하여 「참으로 없었나이다」고 여쭙니라. 그 이튿날 경오의 집에 화적이 들어 그 돈을 모두 잃었도다. 그 사실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그 돈에 척신이 범함을 알고 창생을 건지려고 청한 것이거늘 그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전경> 행록 3장 16절

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척과 원한의 작용 방향은 반대이고 성정은 같다. 따라서 척의 성정만 고려되어 진다면 憾은 復讐形적인 怨恨이며 부정적 측면의 원으로 해석되어 진다.

4. 冤의 總體的 構造와 定義

(1) 冤의 總體的 構造

원의 시작인 단주의 원과 삼계에 가득 차 있는 그림자의 원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冤은 성격적 면에서 긍정·부정적 양면성이 나타나는데, 그 유사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도 간혹 나타나지만 긍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恨과, 부정적 측면만 나타나는 怨(怨恨), 憾으로 분류되어 졌다. 여기서 부정적 측면의 원은 주인의 성격을 띠고 주체적 冤(怨)과 손님의 성격을 띠고 있는 객체적 冤(憾)으로 나누어 지며, 이 恨과

2 : 상제께서 영학을 불러들여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는 것이니 과히 불만을 사지 말라」고 타이르셨도다. 영학이 「무슨 척이니까. 깨닫지 못하겠나이다」고 되물은 즉 「너는 열여덟살 때 살인하고 금년에도 또 살인하였나니 잘 생각하여 보라」고 회상을 촉구하시니 그는 옛일을 더듬었도다. 「그 나이 때 제가 남원(南原)에서 전주 아전과 말다툼하다가 그의 무례한 말에 분격하여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이것으로써 신음하다가 그 이듬해 삼월에 죽었도다. …」영학이 이 두 일을 아뢰었도다. ;

<전경> 행록 4장 47절

3 : 「조선을 서양으로 넘기면 인종의 차별로 학대가 심하여 살아날 수가 없고 청국으로 넘겨도 그 민족이 우둔하여 뒤 감당을 못할 것이다. 일본은 임진란 이후 도술 신명사이에 척이 맺혀 있으니 그들에게 맡겨주어야 척이 풀릴지라. …」 ;

<전경> 공사 2장 4절

4 : 이웃 사람이 주는 맛 없는 음식을 먹고 혹 병이 생기더라도 사색을 내지 말라. 오는 정이 끊겨 또한 척이 되느니라. ; <전경> 교법 2장 46절

5 : 부하고 귀하고 지혜롭고 강권을 가진 자는 모두 척에 걸려 콩나물 뿔히듯 하리니 묵은 기운이 채워 있는 곳에 큰 운수를 감당키 어려운 까닭이니라. 부자의 집 마루와 방과 꼭간에는 살기와 재앙이 가득 차 있느니라. ;

<전경> 교법 3장 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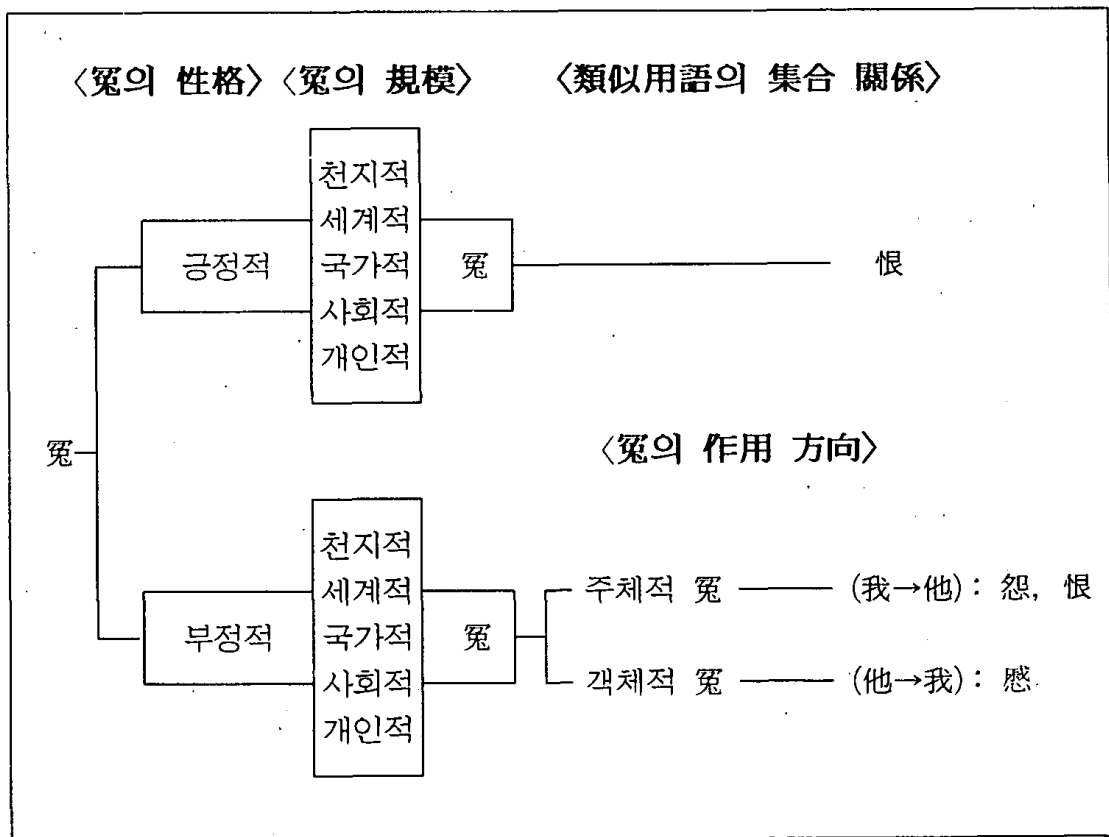
6 : 대장이 삼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 감이 장쾌하고 영귀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물고 많은 살해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 ;

<전경> 예시58

感의 성정만 고려한다면 같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그 작용 방향은 분명히 반대이다.

그리고 원의 규모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았지만, 천계대 지계 혹은 신계대 인계 사이에서 생성되는 원을 논한다면 우주적인 문제이고, 동양대 서양 혹은 한대, 온대, 열대와 같은 지역간에서 생성되는 원을 논한다면 세계적인 문제이고, 조선, 일본, 청과 같은 국가간에서 생성되는 원을 논한다면 국가적인 문제이고, 사회의 관습, 제도, 법 등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원이라면 사회적인 문제이고, 개인의 뜻, 욕구, 욕망을 이루지 못함에서 오는 원이라면 개인적인 문제로 대략적인 분류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설명된 바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고, 이러한 여러 각도의 원을 조명하는 것은 해원의 방법론을 제시할 때 중요한 틀이 된다고 생각한다.



<도표3> 冤의 構造에 대한 總體的 圖式圖

(2) 冤의 定義

원의 총체적인 도식에서 원의 규모와 원이 작용하는 방향을 제외하고 오직 冤이 갖고 있는 성격적인 면만 살펴본다면 원의 자전적 뜻, 자형적 뜻, 단주의 원이 갖고 있는 여러 유형, 파생된 원의 그림자가 갖고 있는 여러 유형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단지 冤에 慙의 성격을 포함시킬 수 있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척을 원의 범주 속에 넣을 수 없다. 그렇지만 척도 풀어야 된다는 해원의 원리에 입각한다면 척의 성격만은 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해석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冤을 정의하면 첫째 뜻을 두고 誠을 다하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성된 마음, 둘째 오해나 누명으로 덮어 쓰는 데서 오는 환경적, 인간적인 요인을 미워하는 마음, 셋째 뜻을 이루려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을 미워하는 마음이다.

Ⅲ. 마무리

원에 관한 연구는 해원상생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전작업에서 첫째 기와 신이 결합된 용어와 기와 신이 분리된 용어 간에 의미 차가 없다는 사실, 둘째 誠의 有·無라는 이원적 형태로 용어들을 구분하고, 각 용어의 뜻이 갖고 있는 본질의 깊이 정도에 따라 범주화 하고, 각 용어들의 범주가 갖고 있는 외향적 성향에 따라 계통 체계를 세우고, 그 계통 체계도에서 誠의 대가가 없음으로 인하여 생긴 冤, 怨, 恨, 慙을 선택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怨, 恨, 慙이 갖고 있는 자전적인 의미가 冤의 세가지 자형적 의미에 함의됨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전 및 자형적 의미로만 보아도 해원의 冤에 怨, 恨, 慙의 의미를 통합하여 사용해도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원의 본질을 연구하기에 앞서 천지공사를 하기 직전에 삼계에 펼쳐져 있는 모든 원의 본질은 단주의 원에 있다는 우주관적 논리를 전경의 교설, 역의 이치, 전교의 설명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아울러 원을 함축할 수 있

는 漢字語의 선택에 있어 토끼(兔)가 보자기(巾)에 갇혀서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는 冤이, 단주의 뜻이 주변 환경적인 여건에 갇혀서 펼치지 못함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자어라는 것을 원의 자형과 원의 본질에서 유추하였다.

그리고 단주의 원이 세태의 추이에 따라 파생 및 증폭되어 나타난 원의 그림자는 긍·부정적 성격 구조로 분석 정리되는데, 긍정적 원은 사람들에게 부각되지 않고, 부정적 원은 사람들에게 선입관으로 잡혀 있다. 그렇지만 전경상에 제시되는 원은 긍·부정적인 양면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해원을 설명할 때 중요한 관점이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해원의 방법론을 연구할 때 필요한 冤의 틀을 만들고자 원의 시작인 단주의 원과 삼계에 가득 차 있는 그림자의 원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원에 대한 성격 정의를 세 가지를 내렸다.

지금까지의 논문 전개 과정에서 논리의 비약도 있고, 앞으로 연구할 부분도 많이 대두되지만 冤의 定形化된 틀을 가지면 해원에 관한 연구 방향의 제시, 해원의 순서, 해원의 방법 등에 기초적인 자료가 되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 | | | |
|---------------------------|----------------------|------------|------|
| 대순진리회 교무부, | 『典經』 | 대순진리회 출판부, | 1974 |
| 대순진리회 교무부, | 『大巡指針』 | 대순진리회 출판부, | 1984 |
| 대순진리회 교무부, | 『大巡眞理會要覽』 | 대순진리회 출판부, | 1969 |
| 대순진리회 교무부, | 『채지가』 | 대순진리회 출판부 | |
| | | | |
| 漢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 『設文解字注』 | 黎明文化事業公司, | 1974 |
| 漢語大詞典編輯委員會, | 『漢語大詞典』 | 漢語大詞典出版社, | 1994 |
| 民衆書館編輯局, | 『漢韓大辭典』 | 民衆書林, | 1995 |
| 동아출판사 편집국, | 『동아 새국어 사전』 | 동아출판사, | 1996 |
| | | | |
| 盧台俊 譯解, | 『新譯 周易』 | 홍신문화사, | 1995 |
| 마루야마도시아끼(丸山敏秋) 作, 박희준 옮김, | 『氣란 무엇인가』 | 정신세계사, | 1989 |
| 朴喜昌 編著, | 『十八史略』 | 동신출판사, | 1992 |
| 司馬遷, | 『史記本紀』 | 흥씨출판사, | |
| 司馬遷·李公麟 原著, 李讚九 編註, | 『72 孔子제자』 | 동신출판사, | 1992 |
| 李圭泰, | 『한국인의 의식 구조 2』 | 신원문화사, | 1993 |
| 李相玉 譯解, | 『書經』 | 한국협동출판공사, | 1993 |
| 李正浩, | 『正易과 一夫』 | 아세아문화사, | 1994 |
| 정범진 외, 역, | 『史記本紀』 | 도서출판 까치, | 1994 |
| 천이두, | 『한의 구조 연구』 | 문화과지성사, | 1993 |
| 韓東錫, | 『宇宙變化의 原理』 | 행림출판, | 1996 |
| | | | |
| 朴龍哲, | 「解冤相生에서 冤에 관한 研究」 | | 1995 |
| | 「大眞論叢(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 대진대학교 출판부 | |
| 朴龍哲, | 「解冤相生에서 解冤에 관한 研究」 | | 1995 |
| | 「大眞論叢(인문·사회과학편) 제3집」 | 대진대학교 출판부 | |